‘숨’에게 건네는 ‘쉼’…낯선 사유의 여백을 채우다

나주 작은미술관, 오는 31일까지 10월 기획전 ‘낯선 여유: 휴식과 감정의 풍경들’展

이철규·서은선·윤종호·윤우제 작가 참여
서로 다른 감각으로 빚어낸 ‘여유’의 풍경

빠르게 흘러가는 일상 속 무심히 지나친 감정의 결을 되돌아보게 하는 전시가 나주에서 열리고 있다.

오는 31일까지 나주 정미소 4·5동 전시실에서 진행되는 나주 작은미술관 10월 기획전 ‘낯선 여유: 휴식과 감정의 풍경들’이다. 현대사회에서 잃어버린 ‘쉼’의 감각을 예술적 언어로 풀어내며, 잠시 사유의 여백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전시다.

참여 작가는 이철규·서은선·윤종호·윤우제 4인으로, 회화·설치·영상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각자의 방식으로 ‘여유’의 풍경을 그려낸다.

이철규는 인간관계에서 생겨나는 긴장과 내면의 상흔을 섬세하게 시각화한다. ‘남겨진 자들의 시간’과 ‘이방인’ 시리즈에서는 관계의 단절과 상호의존적 고독을 함께 보여주며, 그 속에서 피어나는 미묘한 위로의 순간을 조형적으로 드러낸다. 작품을 통해 인간이 타인과 맺는 복합적인 감정의 결을 느리게 짚어나가게 한다.

윤종호의 ‘Endless Garden’은 식물과 구조물이 함께 존재하는 공간을 통해 자연과 인공, 변화와 영원의 경계를 탐색한다. 관객은 작품을 둘러보며 시간의 흐름과 생명력, 그리고 그 사이의 일시적인 ‘쉼’을 체험하게 된다.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다시 성찰하게 만드는 이 설치 작업은 ‘지속되는 생명’이라는 주제를 일상의 감각으로 확장한다.

이철규作 ‘남겨진 자들의 시간’

윤우제作 ‘플라밍고의 비밀의 숲’

서은선作 ‘생의 유약’ (왼쪽)과 윤종호作 ‘Endless garden’

서은선은 디지털 기술과 인간 감정의 교차점에서 초현실적 풍경을 펼쳐 보인다. 인공지능이 제시하는 냉정한 이미지 위에 기억과 감정을 덧입혀 디지털 세계 속에서도 인간적인 따뜻함과 정서를 되살린다. 그의 작품은 감정의 단절이 만연한 가운데 정서적 회복의 가능성을 제시하며 인간 감각의 새로운 층위를 탐색한다.

윤우제는 서로 다른 서식지의 동식물이 한 화면에 공존하는 장면을 통해 환경과 생태, 기후 변화의 문제를 상징적으로 표현한다. 그러나 그의 풍경은 무겁지 않다. 아이러니와 유머가 스며든 화면은 위기 속에서도 살아 움직이는 생명의 아름다움과 인간-자연의 조화를 철학적인 시선으로 비춘다.

총괄 큐레이터 김현희는 “전시 제목 ‘낯선 여유’는 단순히 느긋한 휴식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는 익숙한 세계를 다시 바라보는 시선의 전환이며, 당연하게 여겼던 감각·시간·자연·관계를 새롭게 인식하도록 이끄는 성찰의 자리”라며 “이번 전시는 예술을 통해 자신을 다시 바라보게 하고, 낯설지만 따뜻한 여운을 느끼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로 개관 2년 차를 맞은 나주 작은미술관은 지자체의 유휴공간을 지역 밀착형 문화예술공간으로 재생해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민과 함께 호흡하는 복합문화예술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최명진 기자

빛고을에서 세계로… ‘광주 버스킹월드컵’ 막 오른다

오는 15-19일 5·18광장 일원…밴드 크랙샷, 브라운티거 등 국내외 유망 아티스트 경연

광주가 다시 한 번 세계 음악 무대로 도약한다.

올해로 4회를 맞은 ‘광주 버스킹월드컵’이 경연 중심의 축제를 넘어, 국내외 아티스트와 글로벌 음악시장을 직접 잇는 쇼케이스형 페스티벌로 새롭게 변모했다.

광주동구문화관광재단은 오는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5·18민주광장 일원에서 제4회 광주 버스킹월드컵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축제는 국내외 32개 팀이 참가해 음악과 퍼포먼스, 그리고 관객의 참여가 어우러지는 다층적 축제로 펼쳐진다.

특히 해외 유수 음악 페스티벌 감독 10명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현장에서 직접 뮤지션을 발굴하고, 자신이 기획하는 페스티벌이나 콘서트에 초청할 아티스트를 선정한다.

주요 참가팀으로는 JTBC ‘슈퍼밴드2’ 우승팀 크랙샷과 힙합·R&B 아티스트 브라운티거를 비롯해 아프리카 대표 음악 마켓 ‘Atlantic Music Expo’에 오른 마우라 델가도, 인도 대표 음악 쇼케이스 팀 타피 등이 이름을 올렸다.

지난해 열린 광주 버스킹월드컵 경연 모습

관객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도 눈길을 끈다.

본선 무대에서는 창작곡 외에 K-POP이나 팝송 등 대중적인 추천곡을 선택하면 심사 점수에 반영하는 ‘추천곡 제도’를 새롭게 도입했다. 결선 무대에는 공개모집으로 선발된 시민심사위원 30명이 참여해 최종 우승자를 함께 결정한다.

젊은 관객층 유입과 야간 공연문화 확산을 위해 스페인 출신 DJ 칼라바스와 팔레스타인 출신 DJ 겸 키보드 연주자 이삼 엘리아스의 스페셜 무대도 마련된다. 두 DJ는 금·토요일 밤 11시까지 역동적인 디제잉 공연을 선보인다. 또한 광주음악창작소와 협업한 지역 공연팀 3팀이 버스킹 무대에 올라 축제 분위기를 더한다.

한편 제4회 광주 버스킹월드컵은 충장축제와 함께 5일간 진행되며, 자세한 정보는 공식 누리집(www.buskingworldcup.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명진 기자

영암 아천미술관, 수묵비엔날레 시·군 기념전

‘영암에서 수묵의 울림을 만나다.’

영암군과 전남문화재단이 주최하고 아천미술관이 주관하는 ‘2025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 시군 기념전-숨결 위를 흐르다’가 오는 25일까지 열린다. 이번 전시는 비엔날레 주제 ‘문명의 이웃들-somewhere over the yellow sea’ 아래, 수묵과 한국화의 전통적 깊이를 현대적 감각으로 확장해 선보인다.

강일호·김광웅·김호민·박승·박창수·박홍수·성태훈·안성구·윤영필·이구용·이정열·이창훈·정해영·조양희 작가가 참여해 자연과 인간, 전통과 현대, 지역성과 보편성이 교차하는 예술의 세계를 담았다.

작품들은 단순한 시각적 감상에 머무르지 않고 삶과 예술의 본질적 의미를 되새기게 하며, 사색과 여유의 시간을 전한다.

김현희 아천미술관 학예실장은 “예술은 시대를 비추는 거울이자 새로운 시선을 열어주는 창”이라며 “이번 전시가 영암의 문화적 자부심을 드높이고 한국 현대 수묵의 다양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명진 기자